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

김정우*

1. 들어가는 말

지난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인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라는 명제를 던졌다.¹⁾ 이 어려운 철학적 명제에 대해 한국의 시인 김춘수는 『꽃의 소묘(素描)』(1959)에서 아름다운 시구로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새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언어의 집에서 현존하게 됨을 깨닫게 된다.

나는 『주옹-무라오까 히브리어 문법』을 번역하면서(이후 JMK, 2012년)²⁾ 이 책 안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법 용어들과 언어학의 용어들에 대한 우리말 ‘작명’(作名)에 고심하였고, 출판 직후 문법 용어들의 해례본(解例本)이 나와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마치 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한 후(1446년) 그 해례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연구재단에 <성경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문법 용어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1) M. Heidegger, *Über den Humanismus*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49).

2)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김정우 역,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기혼, 2012).

사전 프로젝트>(2013)를 신청하였고 그 후 5년 동안의 작업으로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문법과 언어학 용어들을 한층 정확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³⁾ 그 첫 결실이 최근 『JMK 개정본』에 반영되었다.⁴⁾ 나는 비로소 문법용어들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자 그들이 ‘꽃’이 되고, 그 존재의 집에 자리잡게 됨을 느꼈다.

이제 나는 『JMK 개정본』을 바탕으로 하여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총체적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신학생들은 신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운다. 이 언어들은 너무나 생소하여 소수만 익히고, 그것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잊어버린다. 신학교에서 성경 원어 공부는 마치 각개 전투와 같다. 학생들은 한 과목 한 과목 따라가며 알파벳, 악센트, 품사들을 배우지만, 문법을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계곡에 갇힌 느낌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 문법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개념도로서 ‘마인드 맵’(mind map)을 만들어 보았다. 히브리어에 적용된 ‘마인드 맵’은 헬라어나 라틴어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장차 우리가 배워야 할 대부분의 언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을 한 가장 큰 보람은 성경을 원어로 읽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을 원어로 읽을 때 원문의 낱점과 생생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인은 “번역 성경을 읽는 것은 베일 쓴 신부에게 입맞추는 것이다”(Haim Nahman Bialik)라고 읊은 바가 있다. 달리 말하자면,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베일을 벗은 신부와 직접 입맞추는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개념도는 성경에 직접 입맞추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작업의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김현권, “성경 고전에 문법용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Canon&Culture』 22 (2017), 201-32를 보라.

4)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김정우 역,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개정본 (기혼, 2022) [이후 JMK로 표기].

2. 문법학의 개념도

히브리어 문법의 개념도는 일반 문법학의 개념도에 근거해야 하므로 먼저 이 항목을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언어들에서 문법학의 개념도는 크게 특정 언어의 분류, 언어의 구조 기술, 인접 학문, 그리고 나서 서술의 절차 및 방식을 다룬다(<도표 #1. 문법학의 개념도>).

이 항목들을 좀 더 세분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⁵⁾

1. 언어의 분류(analysis of languages)
 - 1.1. 언어의 계통 분류(language families)
 - 1.2. 언어의 유형 분류(language types)
 - 1.2.1. 형태론적 분류(typological analysis)⁶⁾
 - 1.2.1.1. 고립어(isolating language)
 - 1.2.1.2.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
 - 1.2.1.3.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

-
- 5) 우리는 이 글에서 전체적인 항목만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고대 언어들의 어족과 수메르어를 비롯한 셈어, 인도-유럽어들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글로서는 R. D. Woodard, (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World's Ancient Languages* (Cambridge: CUP, 2004)를 보라. 또한 언어학과 문법학에 대한 주요 참고 자료로서 아래의 저술들을 보라. E. Benveniste, *Essays on General Linguistic* (Coral Gables, FL: University of Miami. 1971); D. Crystal,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CUP, 1987); R. Huddleston, and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UP, 2002); J. H. Greenberg, *A New Invitation to Linguistic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7); C.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1958); J. Lyons, *Introduction of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UP, 1968); F.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1966).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이후 WO로 표기]
 - 6) 고립어는 어형 변화 없고 문법적 기능은 어순으로 정하는 언어이며, 수메르어, 중국어가 있다. 굴절어에는 셈어, 인도-유럽어가 있으며, 교착어는 문법적 기능이 접사로 표시되는 터키어, 한국어가 있다. 조성식 외, 『영어학사전(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신아사, 1990), 1288.

- 1.3. 통사론적 분류(syntatic anyalysis)
 - 1.3.1. 어순(word order)
 - 1.3.2. 수식어·피수식어 관계
 - 1.3.3. 전치사·후치사 관계
- 2. 언어의 구조 기술(language structure description)
 - 2.1. 철자법(orthography)
 - 2.2. 음성론·음운론(phonology)
 - 2.3. 형태론(품사론, morphology)
 - 2.4. 구문론·통사론(syntax)
- 3. 인접 학문(adjacent science)
 - 3.1. 문헌학(textual criticism)
 - 3.2. 문법의 역사와 사전(history, dictionary)
 - 3.3.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
 - 3.4.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
 - 3.5. 사회 언어학(social linguistics)
- 4. 절차 및 방식(procedure)
 - 4.1. 약어(abbreviation)
 - 4.2. 부호(conventional symbols)
 - 4.3. 패러다임(paradigm)
 - 4.4. 색인(index)
 - 4.5. 참고문헌 (bibliography)

이상의 일반적인 문법학 개념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중심 관심인 히브리어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3. 히브리어의 분류

3.1. 히브리어의 계통 분류

히브리어는 크게 볼 때, 아프리카-아시아 어족에 속하며, 인도-유럽어족과 직간접적으로 교섭하며 발전해 왔다.⁷⁾ (<도표 #2. 히브리어 계통 분류>)

1. 아프리카-아시아 어족

1.1. 셈어(크게 동북 셈어, 서북 셈어, 남부 셈어와 셈어 방언들로 구성된다.)

1.1.1. 동북 셈어: 아카드어, 바빌론어, 앗시리아어, 에블라어

1.1.2. 서북 셈어

1.1.2.1. 가나안어

1.1.2.2. 아람어

1.1.2.2.1. 고대 아람어

1.1.2.2.2. 공식 아람어(imperial Aramaic)

1.1.2.2.3. 중기 아람어

1.1.2.2.4. 후기 아람어

1.1.2.2.5. 현대 아람어

1.1.2.3. 히브리어

1.1.2.3.1. 고전 히브리어

1.1.2.3.2. 포로 후기 히브리어

1.1.2.3.3. 쿨란 히브리어

1.1.2.3.4. 랍비 히브리어

1.1.2.3.5. 중세 히브리어

1.1.2.3.6. 현대 히브리어

1.1.2.4. 페니키아어

1.1.2.5. 우가리트어

7) 히브리어 발달사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Á. Saenz-Badillos, *Historia de la Lengua Hebrea* (Barcelona, 1988); trans. J. E. Elwolde,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1993); trans. 최명덕, 박미섭 『히브리어 발달사』 (기혼, 2011).

- 1.1.3. 남부 셈어
 - 1.1.3.1. 아랍어
 - 1.1.3.2. 에티오피아어
- 1.1.4. 셈어 방언들⁸⁾
- 1.2. 함어
 - 1.2.1. 이집트어
 - 1.2.2. 콥트어
 - 1.2.3. 리비아-베르베르어
 - 1.2.4. 구스어
- 2. 인도-유럽어 어족
 - 2.1. 헬라어(그리스어)
 - 2.2. 히타이트어
 - 2.3. 페르시아어
 - 2.4. 산스크리트어
- 3. 수메르어

우리는 이상의 히브리어 언어의 계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단지 언어의 계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2. 히브리어의 구조

한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철자법, 음성론, 형태론, 구문론을 파악해야 하며, 히브리어의 구조 파악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요청된다.⁹⁾

8) 셈어 방언들로는 포에니어, 메흐리어, 게에즈어 등이 있다.

9) 히브리어어 문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책으로서 참조, F. 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OUP, 1960) [이후 GKC로 표기]; JMK; WO. 우리는 이상의 세 문법책을 중심으로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를 구성해 보려고 한다.

3.2.1. 철자법(orthography) (<도표 #3. 철자법, 음성론>)

1. 자음(consonants)
2. 모음(vowels)
3. 특수 기호(special signs)¹⁰⁾
4. 악센트(accents)
 - 4.1. 히브리어 표준 악센트 체계
 - 4.1.1. 분리 악센트
 - 4.1.2. 연결 악센트
 - 4.2. 히브리어 시가서 악센트 체계
 - 4.2.1. 분리 악센트
 - 4.2.2. 연결 악센트
5. 마소라 본문과 마소라 기호(massoretic text and the massorah)

3.2.2. 음성론(phonetics)

1. 자음 변화(consonants change)
 - 1.1. 자음 중복(다게쉬)
 - 1.2. 마찰음화(브가드크파트)
 - 1.3. 후음 자음들
2. 모음 변화(vowels change)
 - 2.1. 필리피 법칙
 - 2.2. 모음 약화
 - 2.3. 모음 탈락
 - 2.4. 모음 충돌

3.2.3. 형태론(morphology) (<도표 #4.1. 관사, 대명사, 동사>)

1. (정)관사(definite article)¹¹⁾

10) 히브리어 특수 기호에는 다게쉬, 마픽, 라페, 마캡, 메테그 등이 있다. JMK §10-14 참조

11) 히브리어, 헬라어의 형태론에서 관사가 항목의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관사가 고대의 지시사로서 대명사의 기본 형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2. 대명사(pronoun)

2.1. 지시 대명사

2.2. 의문 대명사

2.3. 관계 대명사

2.4. 인칭 대명사

2.4.1. 분리 대명사

2.4.2. 인칭 대명사 접미사

3. 동사(verb)

3.1. 기본형(Qal conjugation)

3.1.1. 접미 변화(완료, suffix conjugation), 접두 변화(미완료, prefix conjugation)

3.1.1.1. 접미 변화(완료)

3.1.1.2. 접두 변화(미완료)

3.1.2. 도치 바브 완료형, 도치 바브 미완료형(inverted forms)

3.1.2.1. 도치 바브 완료형

3.1.2.2. 도치 바브 미완료형

3.1.3. 의지형(volitive forms)

3.1.3.1. 권유형

3.1.3.2. 지시형

3.1.3.3. 명령형

3.1.4. 분사(participle)

3.1.5. 부정사(infinitive)

3.1.5.1. 절대형

3.1.5.2. 연계형

3.2. 파생형(derived conjugations)

3.2.1. 니팔형(Nifal conjugation)

3.2.2. 피엘형(Piel conjugation)

3.2.3. 히필형(Hifil conjugation)

3.2.4. 호팔형(Hofal conjugation)

3.2.5. 히트파엘형(Hitpael conjugation)

3.2.6. 수동태 동사들(푸알, 호팔, 칼 수동태)(passive conjugations)

3.2.7. 드문 형태들(니트파엘, 히쉬타펠, 누팔)(rare conjugations)

3.2.8. 네 자음 동사들(quadriliteral verbs)

- 3.3. 동사 대격 인칭 접미사(verb with suffixes)
 - 3.3.1. 완료형 대격 인칭 접미사(perfect with suffixes)
 - 3.3.2. 미완료형 대격 인칭 접미사(imperfect with suffixes)
 - 3.3.3. 명령형 인칭 접미사(imperative with suffixes)
 - 3.3.4. 부정사 인칭 접미사(infinitive with suffixes)
 - 3.3.5. 분사 인칭 접미사(participle with suffixes)
- 3.4. 후음 동사(guttural verbs)¹²⁾
 - 3.4.1. 제 1후음 동사(first-guttural verbs)
 - 3.4.2. 제 2후음 동사(second-guttural verbs)
 - 3.4.3. 제 3후음 동사(third-guttural verbs)
- 3.5. 약동사(weak verbs) (페 계열) (라메드 계열) (아인 계열)
 - 3.5.1. 페-눈 동사(פ"נ verbs)
 - 3.5.2. 페-알렙 동사(פ"ל verbs)
 - 3.5.3. 페-바브 동사(פ"ב verbs)
 - 3.5.4. 페-요드 동사(פ"ד verbs)
 - 3.5.5. 페-요드-짜디 동사(פ"דצ verbs)
 - 3.5.6. 라메드-알렙 동사(לפ"ל verbs)
 - 3.5.7. 라메드-헤 동사(לפ"ה verbs)
 - 3.5.8. 아인-바브 동사(א"ב verbs)
 - 3.5.9. 아인-요드 동사(א"ד verbs)
 - 3.5.10. 아인-아인 동사(א"א verbs)
 - 3.5.11. 약동사들의 상호 관계(Relation of the weak verbs to one another)
 - 3.5.12. 불완전 동사(Defective verbs)
- 4. 명사(noun) (<도표 #4.2.명사, 수사, 불변화사>)
 - 4.1. 명사의 구성(noun formation)
 - 4.1.1. 원시 명사와 파생 명사(primitive forms and derived forms)
 - 4.1.2. 명사 파생 명사와 동사 파생 명사(denominative noun and deverbal noun)
 - 4.1.3. 명사의 다른 형태들: 형용사, 복합 명사, 차용어(other forms)
 - 4.2. 명사 형태들(nominal forms)
 - 4.2.1. 단 자음 형태(forms with only one consonant)

12) 후음 동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자음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 4.2.2. 두 자음 형태(forms with two consonants)
- 4.2.3. 세 자음 형태(forms with three consonants)
 - 4.2.3.1. 한 모음 형태
 - 4.2.3.2. 두 단모음 형태
 - 4.2.3.3. 첫 단모음과 둘째 장모음 형태
 - 4.2.3.4. 첫 장모음과 둘째 단모음 형태
 - 4.2.3.5. 두 장모음 형태
 - 4.2.3.6. 둘째 자음 중복 형태
 - 4.2.3.6.1. 두 단모음 형태
 - 4.2.3.6.2. 둘째 장모음 형태
 - 4.2.3.7. 자음 반복 형태
- 4.2.4. 네 자음 어근 형태(quadraliteral forms)
- 4.2.5. 접두사를 가진 형태(forms with preformatives)
- 4.2.6. 접미사를 가진 형태(forms with sufformatives)
- 4.3. 성과 수(gender and number)
 - 4.3.1. 남성(masculine)
 - 4.3.2. 여성(feminine)
 - 4.3.3. 복수(plural)
 - 4.3.4. 쌍수(dual)
- 4.4. 절대형·연계형(absolute forms-construct forms)
 - 4.4.1. 절대형(absolute state)
 - 4.4.2. 연계형(construct state)
 - 4.4.3. 명사의 첨가 모음들(paragogic vowels)
 - 4.4.4. 인칭 대명사 접미사(를 가진 명사들)(nouns with pronominal suffixes)
- 4.5. 명사 변화(noun inflections)
 - 4.5.1. 남성 명사 변화(inflection of masculine nouns)
 - 4.5.1.1. 씨꼴 명사 변화
 - 4.5.1.2. 두 개 원시 단모음 명사 변화
 - 4.5.1.3. 불변 첫 번째 모음과 두 번째 원시 단모음 명사 변화
 - 4.5.1.4. 첫 번째 원시 단모음과 두 번째 원시 장모음 명사 변화
 - 4.5.1.5. 두 개의 자음과 하나의 원시 단모음 명사 변화
 - 4.5.2. 여성 명사 변화(inflection of feminine nouns)

- 4.5.2.1. 하나의 원시 모음만 가진 명사 변화
- 4.5.2.2. 두 개의 원시 단모음 명사의 변화
- 4.5.2.3. 불변하는 첫 번째 모음과 두 번째 원시 단모음 명사 변화
- 4.5.2.4. 첫 번째 원시 단모음과 두 번째 모음 명사 변화
- 4.5.2.5. 두 개의 자음과 하나의 원시 단모음 명사 변화
- 4.5.2.6. 세골 어미들의 변화
- 4.5.2.7. 기타 형태의 명사 변화
- 4.6. 불규칙 명사(irregular nouns)
- 4.7. 불완전 명사(defective nouns)
- 4.8. 수사(numerals)
 - 4.8.1. 기수(cardinal numerals)
 - 4.8.2. 서수(ordinal numerals)
 - 4.8.3. 배분사(multiplicatives)
- 5. 불변화사(particles)
 - 5.1. 부사(adverb)
 - 5.2. 전치사(preposition)
 - 5.3. 접속사(conjunction)
 - 5.4. 감탄사(interjection)

3.2.4. 구문론(통사론, 문장론, syntax)

- 1. 동사 구문(verb) (<도표 #5. 동사, 부정사, 분사>)
 - 1.1. 시제(tense)
 - 1.1.1. 완료(perfect)
 - 1.1.2. 미완료(imperfect)
 - 1.1.3. 시제의 도치(도치법)(inverted tenses)
 - 1.2. 시상(aspect)
 - 1.3. 서법(mood)
 - 1.3.1. 직설법(indicative mood)
 - 1.3.2. 의지법(volitive moods)
 - 1.3.2.1. 권유법
 - 1.3.2.2. 지시법

1.3.2.3. 명령법

2. 부정사 구문(infinitive)

2.1. 부정사 절대형(infinitive absolute)

2.1.1. 형태와 의미(forms and meaning) -

2.1.2. 명사어 용법(nominal uses)

2.1.2.1. 전치 부정사 절대형

2.1.2.2. 후치 부정사 절대형

2.1.3. 부사어 용법(adverbial uses)

2.1.4. 동사적 용법(verbal uses)

2.2. 부정사 연계형(infinitive construct)

2.2.1. 형태와 의미(forms and meaning)

2.2.2. 명사어 용법(nominal uses)

2.2.3. 부사어 용법(adverbial uses)

2.2.4. 동사적 용법(verbal uses)

3. 분사 구문(participle)

3.1. 형태와 의미(forms and meaning)

3.2. 술어적 분사와 수식적 분사(predicative and determinative participle)

3.2.1. 술어적 분사(predicative participle)

3.2.2. 서술적 분사(determinative participle)

3.3. 능동 분사와 수동 분사(active and passive participle)

3.3.1. 능동 분사(active participle)

3.3.2. 수동 분사(passive participle)

3.4. 절대형 분사와 연계형 분사(absolute state and construct state)

3.4.1. 절대형 분사(absolute state)

3.4.2. 연계형 분사(construct state)

4. 격: 동사의 지배(cases) (<도표 #6. 격, 전치사, 명사, 형용사, 일치 등>)

4.1. 직접 대격(direct accusative)

4.2. 간접 대격(indirect accusative)

4.3. 속격과 연계형(genitive and construct state)

4.4. 동격(apposition)

5. 전치사 구문(prepositions)

5.1. 명사적 한정어(nominal attributive)

- 5.2. 동사의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of the verb)
- 5.3. 전치사 각론(prepositions in particular)
- 6. 명사 구문(noun)
 - 6.1. 명사의 성(gender of nouns)
 - 6.2. 단수 형태로 표현된 복수성(plurality expressed by the collective singular)
 - 6.3. 복수형(plural)
 - 6.4. 한정과 비한정(determination and indetermination)
 - 6.4.1. 정관사(article)
 - 6.4.2. 동격에서의 한정(determination in apposition)
 - 6.4.3. 속격 그룹의 경우에서 한정(determination in a genitive group)
 - 6.4.4. 접미사와 함께 나오는 명사에서의 한정(suffixed nouns with the article)
 - 6.5. 형용사(adjective)
 - 6.5.1. 비교급(comparative)
 - 6.5.2. 최상급(superlative)
 - 6.6. 수사(numerals)
- 7. 대명사 구문(pronoun)
 - 7.1. 지시 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 7.2. 의문 대명사(interrogative pronoun)
 - 7.3.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
 - 7.4. 인칭 대명사(personal pronoun)
 - 7.5. 대명사의 대용어(pronominal substitutions)
- 8. 일치(agreement)
 - 8.1. 형용사 일치(agreement of the adjective)
 - 8.2. 인칭대명사 일치(agreement of the personal pronoun)
 - 8.3. 동사의 일치(agreement of the verb)
 - 8.4. 인칭의 일치(agreement in respect of person)
 - 8.5. 중성의 표현(expression of the neuter)
- 9. 절(clauses) (<도표 #7. 절>)
 - 9.1. 일반절(general clauses)
 - 9.1.1. 명사절(nominal clause)
 - 9.1.2. 동사절(verbal clause)
 - 9.1.3 고리형(casus pence)

- 9.2. 특수절(particular clauses)¹³⁾
 - 9.2.1. 실명사절(substantival clause)
 - 9.2.2. 관계절(relative clause)
 - 9.2.3. 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
 - 9.2.4. 부정절(negative clause)
 - 9.2.5. 의문문(interrogative sentence)
 - 9.2.6. 감탄절(exclamatory clause)
 - 9.2.7. 기원절(optative clause)
 - 9.2.8. 단언절(asseverative clause)
 - 9.2.9. 저주와 맹세의 절(clause of curse and oath)
 - 9.2.10. 시간절(temporal clause)
 - 9.2.11. 조건절(conditional clause)
 - 9.2.12. 목적절(final clause)
 - 9.2.13. 결과절(consecutive clause)
 - 9.2.14. 인과절(설명절)(causal and explicative clause)
 - 9.2.15. 양보절(adversative clause)
 - 9.2.16. 반의절(adversative clause)
 - 9.2.17. 예외절(exceptive clause)
 - 9.2.18. 비교절(comparative clause)
 - 9.2.19. 분리절(disjunctive clause)
 - 9.2.20. 돈절법(aposiopesis)¹⁴⁾
- 9.3. 접속사 바브(conjunction vav)
 - 9.3.1. 귀결절의 바브(vav of apodosis)
 - 9.3.2. 접속사 구문과 비접속사 구문(syndesis and asyndesis)

13) 특수절의 항목은 GKC와 JMK에서 가장 상세하며 두 문법책에서 그 항목들은 별 차이가 없지만, 분류의 순서(배열)와 명칭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진다. 또한 JMK는 ‘실명사절’로 시작하며 여기에 일반절인 명사절과 동사절을 포함시키면서도 실명사절은 주어, 술어, 동격, 속격,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GKC §157 목적어절(간접 화법)을 실명사절에 포함시키고 있다.

14) 돈절법은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문장 전체나 일부를 생략하는 수사학적 기법”으로서 JMK에는 나오지 않으며 GKC가 특수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167).

4. 나가는 말

모든 여정에는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가 있어야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도가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표지물들과 여러 갈래 길들 뿐 아니라 지형, 기후,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특징들과 경계선들을 가시화할 수 있다. 즉, 지도를 잘 읽어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에도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성경의 언어들을 공부하는데도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문법의 개념도(a concept map 또는 a mind map)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도가 있을 때 우리는 문법 공부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를 통하여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언어는 철자와 발음과 형태와 구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큰 중심축 안에 용어들의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을 통하여 문법 안에 있는 복합적인 정보의 구성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놀라운 언어이다. 이 언어 속에 인류 최초의 언어인 수메르어와 세계 문명을 주도해온 셈어-함어의 모든 형태들과 역사들이 담겨 있으며, 인도 유럽어와 기타 언어들의 약도가 새겨져 있다. 이 언어 속에 우리가 경협해야 할 모든 언어의 약도가 다 담겨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 문법의 개념도를 통하여 성서학의 기본이 되는 아람어, 헬라어의 개념도뿐만 아니라 우리 말인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신장하고, 장차 동아시아 언어들 및 제 3세계의 언어들까지도 습득하고 숙지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차 이 개념도에 근거한 더 심화된 문법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주석, 성경번역, 설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언어,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 하이데거, 문명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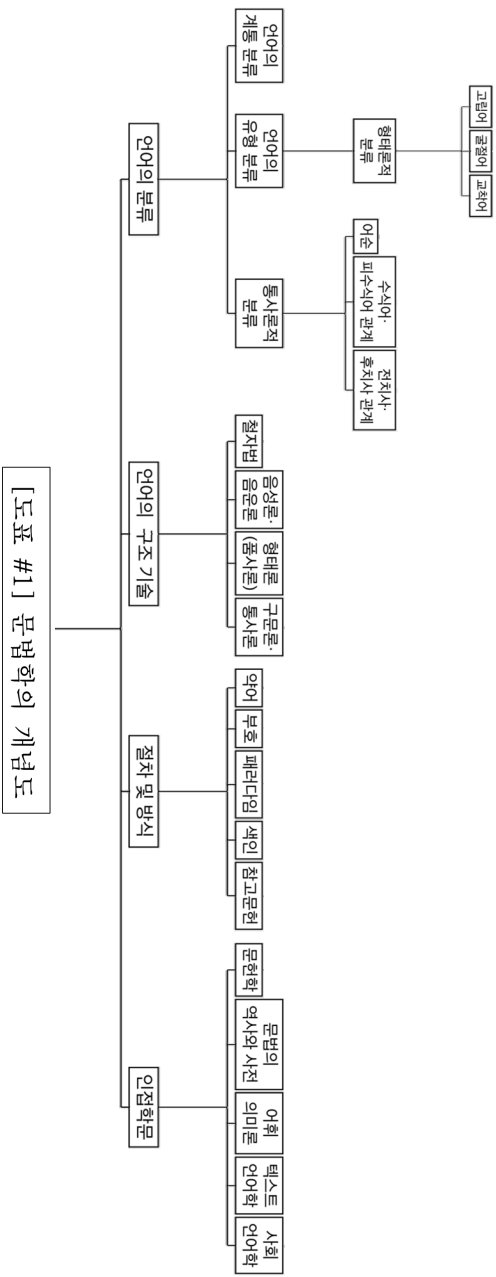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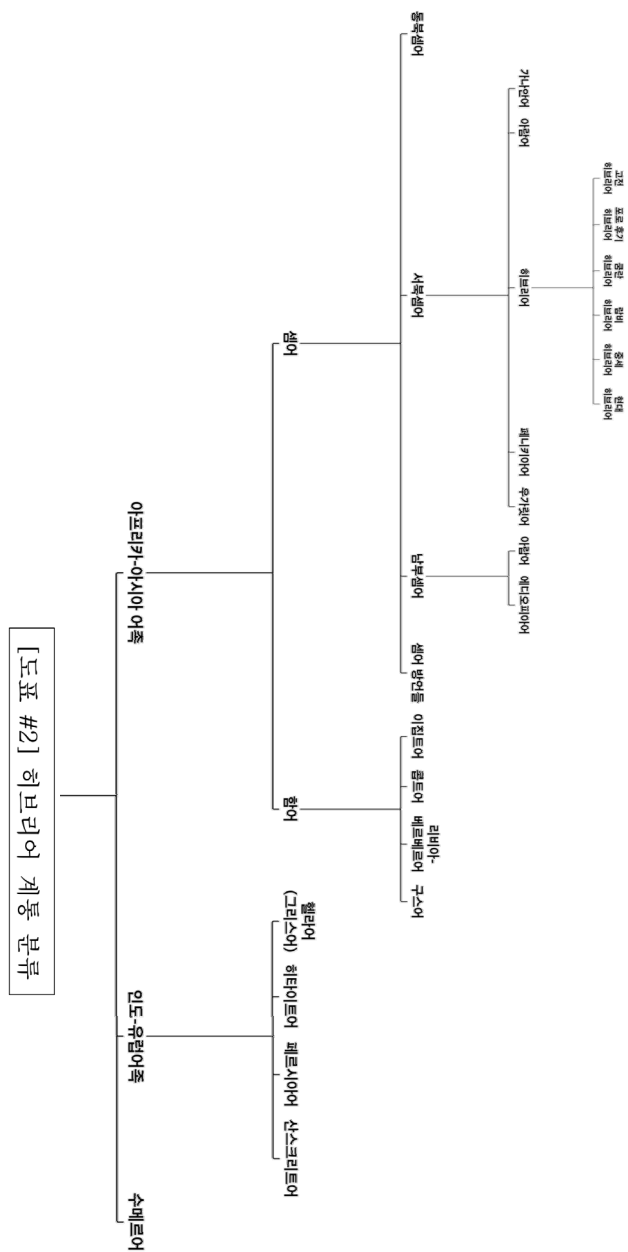
language, Hebrew, grammar, conceptual map, Heidegger, civilization
history, 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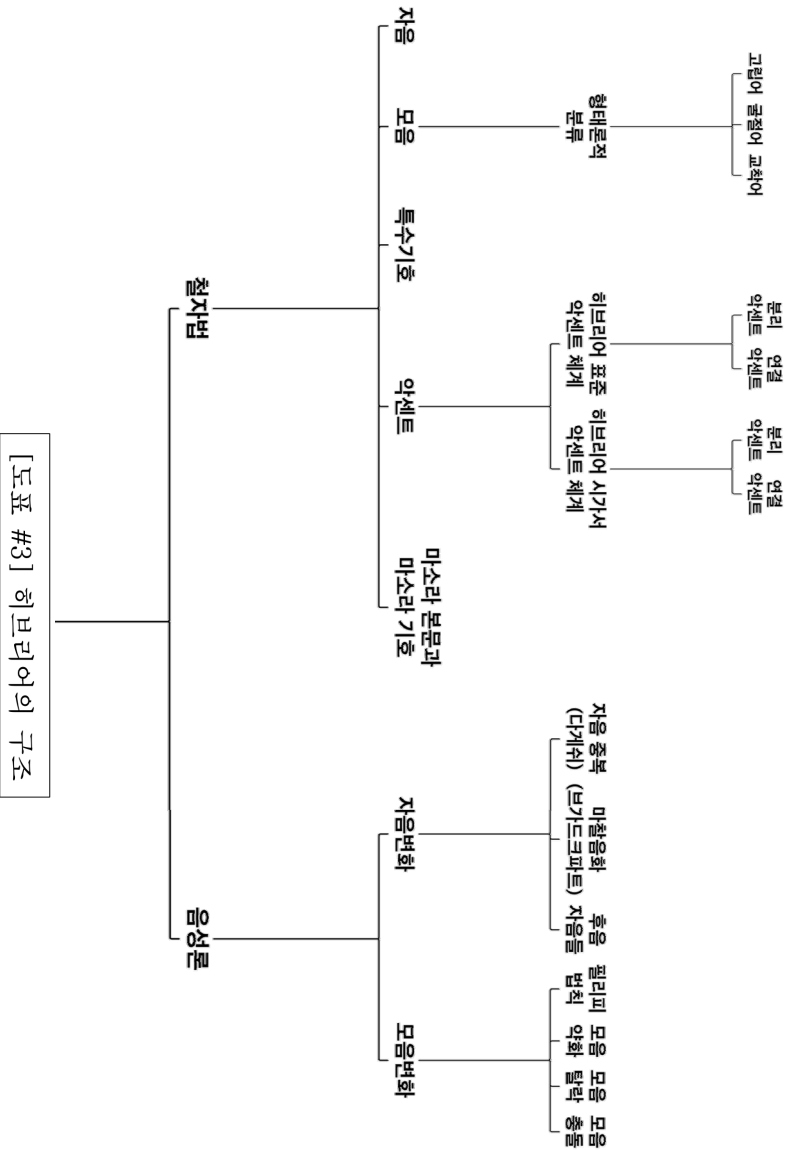
* 접수일 2023년 3월 2일, 수정일 2023년 3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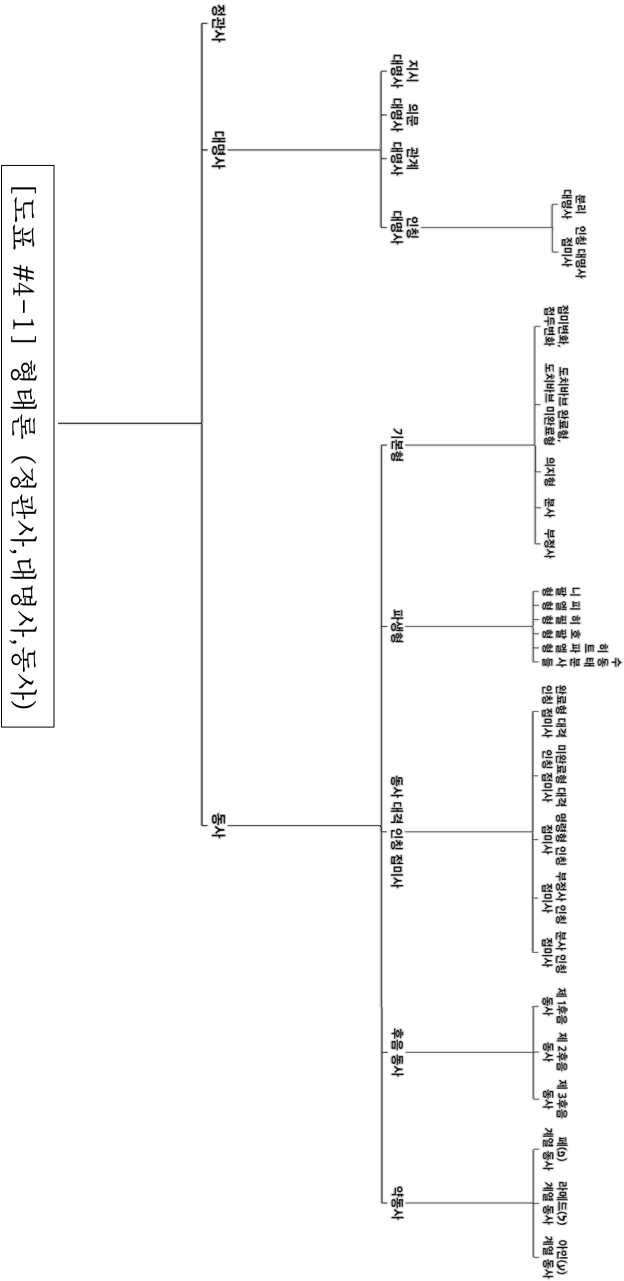
전체 도표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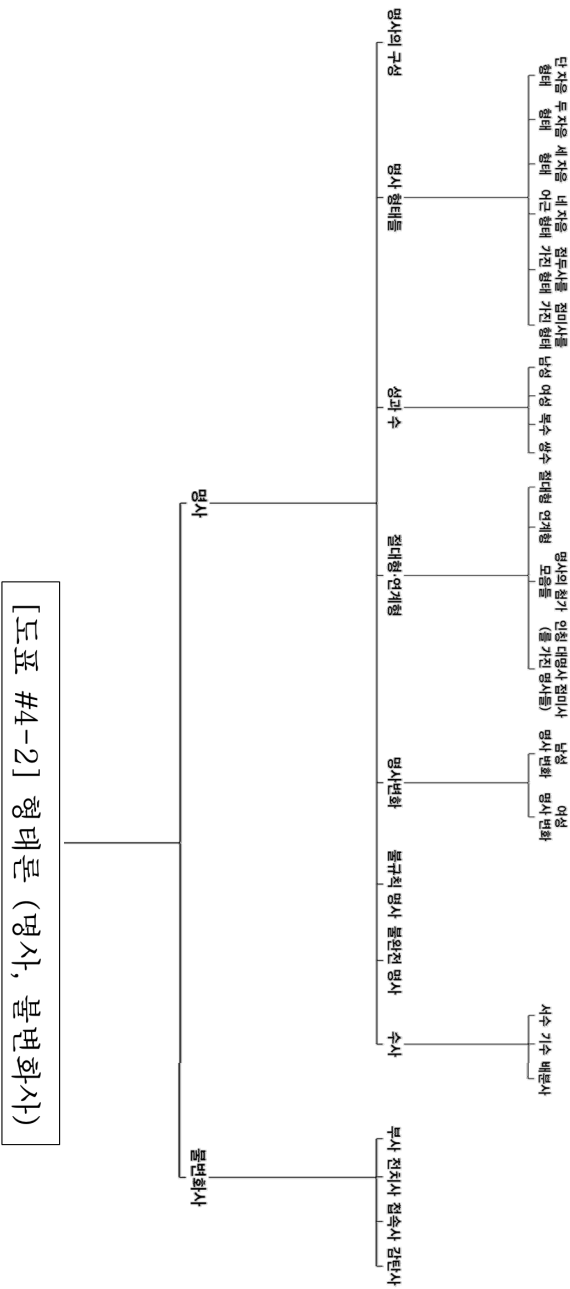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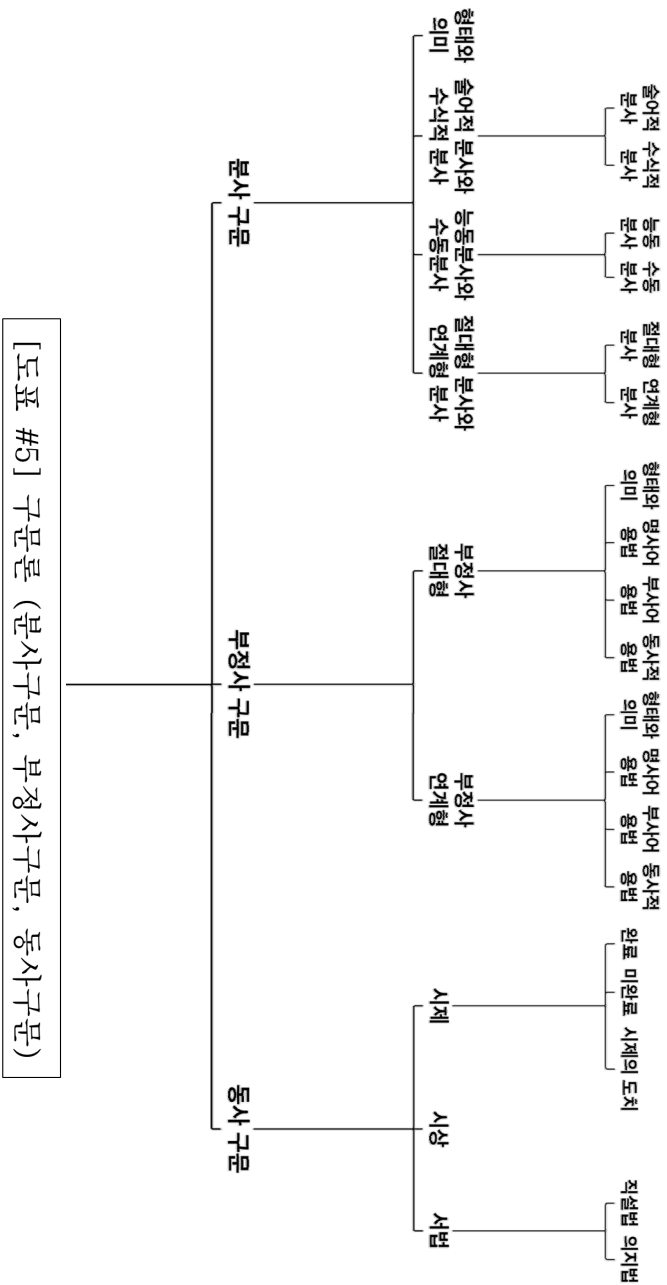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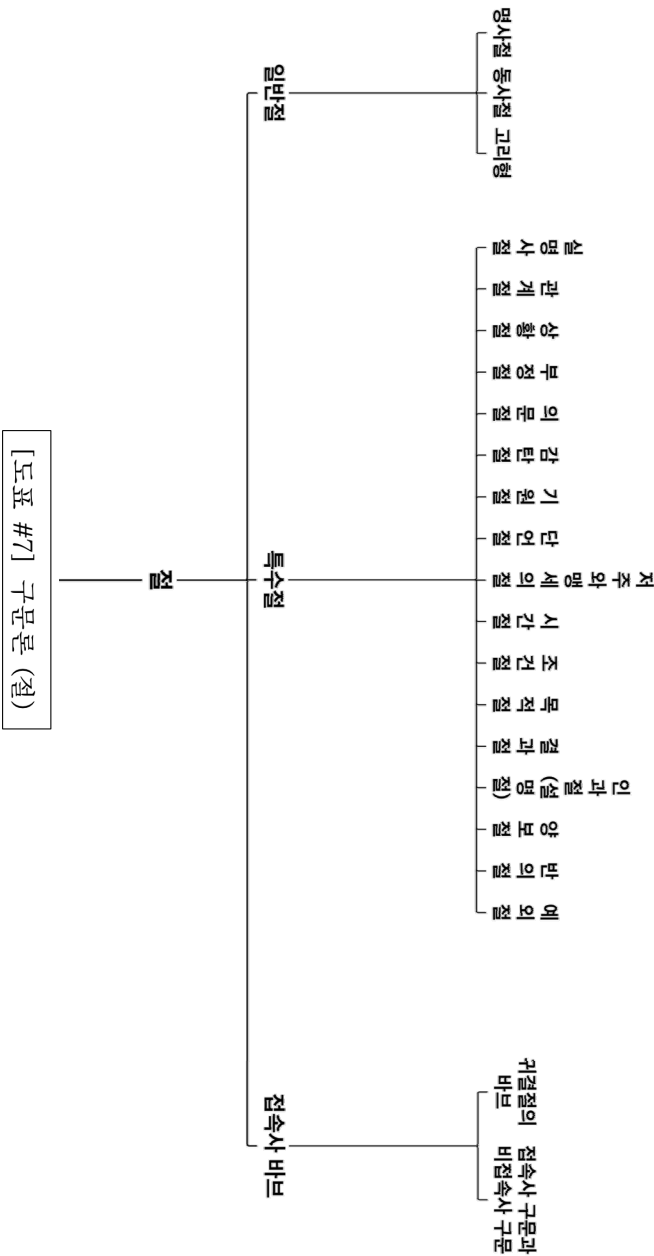












참고문헌

- Aarts, B., S. Chalker and E. Weiner,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Benveniste, E., *Essays on General Linguistics*, Coral Gables, Florida: University of Miami, 1971.
- Busmann, H.,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Taylor & Francis Ltd, 1999.
- Crystal, D.,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_____,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87.
- Gesenius, F. W., E. Kautzsch and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신윤수 역, 『게제 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 Greenberg, J. H., *A New Invitation to Linguistic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7.
- Hockett, C. F.,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1958.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2.
- Joüon, P.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김정우 역, 『주홍-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개정본, 기혼, 2022.
- Lyons, J., *Introduction of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68.
- Saenz-Badillos, Á.,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mbridge, 1993. 최명덕, 박미섭 역, 『히브리어 발달사』, 기혼, 2011.
- De Saussure, F.,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1966.

Waltke, B.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Woodard, R. D., (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World's Ancient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김현권, “성경 고전어 문법용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Canon&Culture」 22 (2017), 201-32.

조성식 외, 『영어학사전(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서울: 신아사, 1990.

<초록>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

김정우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모든 여정에는 지도가 필요하다. 여행자는 지도가 있어야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도가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지물들과 여러 갈래 길들 뿐 아니라 지형, 기후,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특징들과 경계선들을 가시화할 수 있다. 즉, 지도를 잘 읽어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에도 연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성경의 언어들을 공부하는데도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문법의 개념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도가 있을 때 우리는 문법 공부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문법 개념도를 통하여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언어는 철자법, 음성론, 형태론, 구문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큰 중심축 안에 문법의 온갖 다양한 세부적 범주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문법 개념도를 통하여 문법 안에 있는 복합적인 정보의 구성을 보며 파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개념도를 통하여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마틴 하이데거의 명제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s>

A Tentative Conceptual Map of the Hebrew Grammar

Dr. Jungwoo Kim
(Director of IKTINOS)

The art of planning a journey necessitates a map to guide the traveller towards the intended destination. The map provide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area, including topography, climate, culture, religion, and politics, as well as significant landmarks and essential routes to follow. It is imperative for the traveller to possess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map with accurac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long the way.

Similarly, in scientific research, a conceptual or mind map is required to navigate and explore a given field comprehensively. This paper aims to outline a tentative conceptual map of Hebrew grammar, thereby enabling a clear visualization of the journey of grammar study from inception to conclusion. The map will reveal how the language is organized, with a focus on significant areas such as orthography, phonetics, morphology, and syntax. The central axes provide a platform for the detailed analysis of various grammatical categories. The conceptual map will aid the student in establishing their current position in the journey and the direction to follow, avoiding fatigue and confusion. In this regard, the ultimate goal is to comprehend Martin Heidegger's statement that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서평>

『하나님과 성전: 이스라엘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로날드 클레멘츠 저, 이윤경 역, 서울: CLC, 2023

김정우*

나의 학문과 믿음의 오랜 동반자인 이윤경 교수께서 구약신학의 고전이며 필독서인 클레멘츠 교수(Ronald E. Clements, 1929-)의 역작인 *God and Temple: The Idea of the Divine Presence in Ancient Israel* (Oxford: B. H. Blackwell, 1965)을 『하나님과 성전: 이스라엘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로 번역하여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구약성경 안에는 창조, 구원사, 언약, 율법(토라), 성전, 제의, 메시아, 예언, 종말, 지혜, 윤리 등의 온갖 다양한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스토리가 독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 큰 스토리를 찾아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신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클레멘츠에게 그 큰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내포하며, 이 주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긴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큰 주제를 방대한 본문들에서 어떻게 찾아내며 나아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인가?

이 책은 성서학에서 역사비평학의 절정기였던 1960년대에 집필되었다(1965년). 따라서 클레멘츠 교수는 역사비평적 방법론으로 본문을 선별하며 배열해 나간다. 왜냐하면, 구약신학은 사상의 발전을 역사 안의 긴장과 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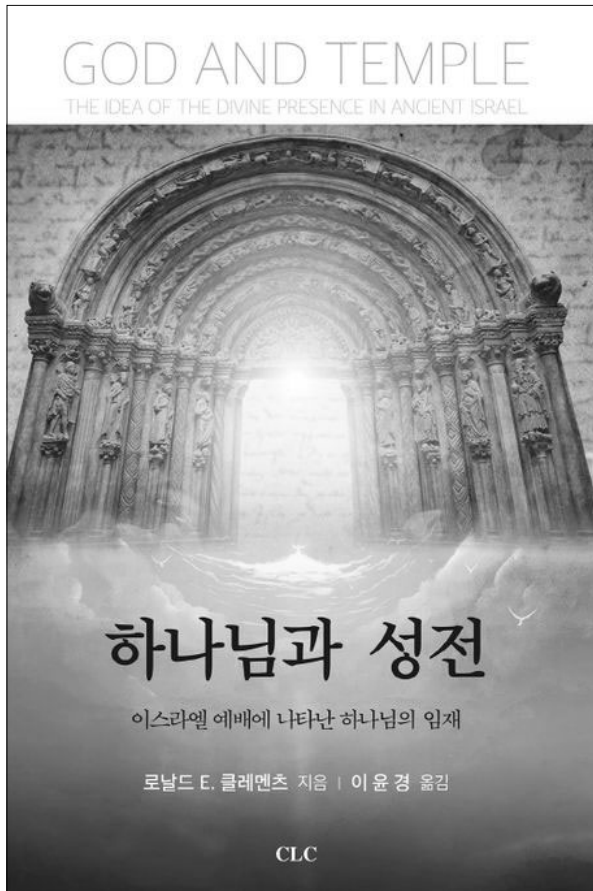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가운데 학문적으로 진술해 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역사 비평학은 “도구”이며, “목적”은 아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고대 근동아시아와 가나안 종교들을 배경으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서술되고 있는 족장들의 전승, 출애굽과 사나산, 언약궤와 성막,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및 시온산 선택,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예배, 신명기사 학자들의 설교, 솔로몬 성전 파괴와 포로기의 예언들, 포로 귀환 후의 성전 재건과 제사장 신학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갈등을 역동적으로 다루는 데 있다. 나아가 그는 쿰란 공동체와 신약성경까지 지평을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안에 제기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문제 및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긴장과 갈등과 충돌은 기독교의 중심 주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해소되며, 여기에서 “신적 내재성과 초월성은 인간과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인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탁월한 결론을 내린다.

이 책을 읽는 복음주의적 독자들은 저자의 역사 비평학적 용어들과 전개와 방법론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책을 통하여 비평학적 독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비평학이 신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 비평학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비평학이 목적이 아니라 신학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방법론에 함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내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의 보수신학은 탈역사적 해석에서, 진보신학은 탈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으로 서로 소통하고 존경하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클레멘츠 교수는 현존하는 “영국 구약학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서, 늘 중용의 길(Via Moderna)의 걸으며, 치열하게 비평적이지만 동시에 복음적인 해석의 모델을 이 책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은혜로운 책”은 아니지만, 사이 사이에 “은혜가 있다”. 뼈를 씹는 것처럼 딱딱하지만, 그 안에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코비드 19의 팬데믹과 새로운 팬데믹의 발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대전의 가능성, 기후 변화와 기술문명의 발전 등으로 일어날 묵시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재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이 책은 오래되었고 내용은 짧지만 그 유효기간은 길 것이다.



Canon&Culture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총칙

C&C에 기고되는 모든 논문은 다음의 윤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평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Canon&Culture*에 투고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2) 전문 지식을 학계와 교회 및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견지하는지.
-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4)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5)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

제4조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의 범위)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인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

①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3) 변조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①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②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③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자기표절

① 동일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하는 행위.

②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 출간하는 자기 표절 행위

③ 논문 쪼개기 행위.

④ 중복 게재의 최종 판단은 ‘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6) 학위논문의 게재

학위논문을 *Canon&Culture*에 게재할 경우, “본 논문은 000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로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제5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판단 기준)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 2) 해당 행위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함.
- 3)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개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 2) 비의도적 실수.
- 3)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들.

제7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나 업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1) *Canon&Culture*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인 “상세 결과 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가 현저히 높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문헌 간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배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9조 (연구 윤리위원회)

제4조의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과 편집위원회 서기가 위원이 된다.

제11조 (연구윤리 위원의 임기)

연구윤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까지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 1)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한국신학정보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실명으로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논문명, 연구과제명 등 반드시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제보자는 그 이유를 밝혀 특정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피, 제척, 회피)

1)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2)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3)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9조 (이의 제기 및 변론권 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0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징계 판정)

심의 결과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① 경고
- ② 논문 불인정
-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22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4조 (비밀 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 1)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한다.
- 2) C&C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과 관련하여 KIRD 홈페이지 (<http://www.kird.re.kr>) 또는 KIRD 이러닝 포털 (<http://e.kird.re.kr>)에 접속하여 ‘사이버연구윤리교육’ 강의를 시청한다.
- 3) 교육부 발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 한국연구재단 발간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11)’ 등을 중심으로 연구윤리지침을 삼는다.

제27조 (운영 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편집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Canon&Culture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Canon&Culture*가 전문학술지로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anon&Culture*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논문이 결정된다.

제2조(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안내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투고 안내를 공지한다. 이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연구윤리 서약’ 서식 파일(양식 1)을 함께 보내며, 같은 내용을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2) 접수

Canon&Culture 발행 예정일(4월 30일, 10월 31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이 때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인 “상세 결과 확인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연구윤리 서약’을

논문과 함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3) 목록 작성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 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외국어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4) 심사 제외

투고된 논문 중 형식, 분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5) 접수 통보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중 **2명**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투고된 논문 심사를 요청한다. 심사위원은 가능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인접분야의 전공자 편집위원으로 선정한다. **원고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즉, 편집위원회가 권한을 갖는다.

7) 심사: 원고 투고자에 관한 개인적 사항을 제거한 후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제공하며,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8) 게재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을 내린다. 심사자는 판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의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9) 심사위원회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① 심사자가 모두 <게재 가능>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한다.

② 심사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정 제안이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을 재심한 후 결과에 따라 게재한다.

③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자 자격, 선정 및 심사비 지불)

1) 투고 논문의 심사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학자로, 위원장의 자문과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학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3)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위원회 외부 학자가** 심사를 한다.

4) 심사 평가서가 들어오면 논문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4조 (비밀 준수)

심사자는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투고자나 다른 심사자를 비롯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 기준)

1) 형식 심사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논문 체제, 각주, 참고문헌, 초록(abstract), 주제어(keyword), 약자표, 음역 등이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수정을 지시한다.

2) 내용 심사

논문 심사는 ①범위의 적절성 ②논제의 적합성 및 독창성 ③연구 방법의 창의성 ④논리적 구성도 ⑤결론의 합당성 ⑥학문적 유용성 및 기여도 ⑦인용의 적합성과 국내 선행 연구 인용(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 ⑧논문의 완성도 ⑨ **초록의 분량 및 적합성** ⑩논문의 체제 심사로 이루어진다.

초록의 경우, ①논문의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달하는지, ②논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 ③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평가한다.

3) 종합 평가

논문 심사는 내용심사 2)의 기준에 따라 ①탁월함(A), ②우수함(B), ③결함 있음(F)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개별 심사하고 <심사지>에 기록한다.

4) 종합 판정

형식 심사, 개별 항목 심사(내용 심사), 구체적인 심사 소견, 종합 평가를 근거로 종합 판정하여 심사자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 여부를 <심사지>에 기록한다.

5) 서평

서평을 심사할 경우에는 항목별 개별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심사 소견, 종합 평가와 종합 판정만으로 심사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7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Canon&Culture

원고 기고 요청 (Call for paper)

Canon&Culture – A Journal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존경하는 한국의 성서학자들에게 드립니다.

현재 「캐넌앤컬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이며, 미국도서관협회 종교 데이터베이스®(Atla RDB®) 색인지입니다. 본 저널은 2007년 창간호로부터 정경과 문화, 구약과 신약의 성경해석학, 보수적 전통과 진보적 혁신, 한국과 세계, 해석자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복합 및 융합을 아우르는 성경해석학 전문 저널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넌앤컬처」를 통하여 짧게는 한국 교회사 130여년 동안에 쌓인 신학적 유산과 길게는 한국의 역사 수천년 동안 집적된 정신사적·종교적·문화적 유산의 터전 위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정수를 이룬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를 현대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유한 성서학적 관점(perspective)과 시야(horizon)를 본 저널에서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편집위원장 김동수(평택대학교 신약학 교수)

발행인 김정우(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드림

* 기고방식: <https://www.dbpiaone.com/iktinos/index.do>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규논문제출

* 문의: 02-3473-9553, canonandculture@gmail.com